

2019년 외식 트렌드 이끌 키워드는?

농식품부 전망 발표

오는 2019년을 이끌 외식 트렌드가 발표됐다. 외식산업 분야가 창업과 폐업률이 높다는 점에서 내년도 외식소비의 흐름을 분석하고 변화를 예측한다면 창업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표한 '2019년 외식산업 및 트렌드 전망 발표'에 따르면 내년 외식 트렌드를 이끌어갈 키워드는 '뉴트로 감성'과 '비대면 서비스화', '편도족의 확산'이 선정됐다.

우선 '뉴트로 감성'은 익숙하지 않은 옛것(아날로그 감성)들이 젊은 세대에게 신선하고 새로운 것으로 느껴져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뉴트로에는 음식에 제한되지 않고 간판, 디자인,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특성을 고려해 '뉴트로 감성'이 키워드로 도출됐다.

실제, 광주시 동구 동명동 일대에는 이런 뉴트로 감성을 살린 주점과 음식점들이 최근 속속 들어서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외식분야에서는 골목상권에 대한 관심증가가 이러한

뉴트로 감성	비대면 서비스화	편도족의 확산
젊은층 자극하는 아날로그 감성	무인 주문 결제시스템	편의점 도시락 식사 해결

광주 동명동 '뉴트로 감성' 주점·음식점 속속 등장

국민 1인당 월평균 외식 13.9회·30만4천원 지출

현상을 대표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비대면 서비스화'는 패스트푸드나 편의점, 대형 마트 등에서 사용되는 무인주문 및 결제시스템의 확산을 의미한다. 무인화·자동화의 확산에 따른 배달앱, 키오스크, 전자결제 등의 발달로 외식 서비스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형태가 영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외식분야에서 '비대면'의 의미는 사람 중심의 서비스에서 기계중심의 서비스로의 이동으로 대표되고 있으나 외식업계에서는 사람중심의 고급화된 서비스와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로 양극화 해결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편도족의 확산'은 식사의 해결 방식이 다양해지고, 편의점에서 HMR제품을 사먹는 것도 소비자들이 외식으로 인식하는 현상이 확산되는 것을 뜻한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을 뜻하지만, 내년 외식 트렌드에서 나타나는 편도족의 확산은 단순히 HMR의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편의점이 서비스 및 음식섭취의 공간으로 식당을 대체하게 되는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을 의미한다.

또 이번 발표에서는 전국 외식 소비자

3000여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된 2018년 외식소비행태도 발표됐다.

월평균 외식 빈도는 13.9회로 지난해 14.75회에 비해 월 1회 정도 줄었으며, 월평균 외식지출 비용도 30만4000원에서 27만3000원으로 감소했다. 주 이용 음식점은 한식(59.0%), 구내식당(7%), 패스트푸드(6%) 순으로, 평균 비용은 방문외식의 경우 1만1066원, 배달은 1만4709원, 포장 외식은 9945원이었다.

혼밥의 경우, 월평균 3.45회 정도로, 남성(4.39회)이 여성(2.47회) 보다 그 빈도가 훨씬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09회, 지역별로는 서울 4.74회가 가장 높았으며, 평균 지출비용은 월 3만8928원 수준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9년 외식산업 및 트렌드 전망 발표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내년도 사업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식관련 정보의 개발 및 보급뿐만 아니라 외식업계, 소비자와의 소통을 적극 확대해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발전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농협 광주검사국, 감사업무협의회 농협 광주검사국(국장 이재연)은 지난 13일 광주관내 지역농협 감사팀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하반기 감사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금융기관 주요 사고사례 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과 사업부서별 내부통제 제도 강화 필요성 등 올해 주요 감사추진사항을 비롯해 2019년도 감사방향 등에 대한 집중교육이 이뤄졌다.



전남 농협-미국처리장 광주전남운영협 워크숍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와 미국 종합처리장 광주전남운영협의회(협의회장 김재명 동강농협 조합장)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최근 쌀 수급동향에 대한 논의와 향후 지역별 벼매입가격결정 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

워크숍 기간 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2018년 산 쌀 생산량 자료를 토대로 수급동향을 살펴봤으며, 공매 등에도 불구하고 보험세를 유지하고 있는 쌀값 현상과 목표가격 재설정 논의 과정을 비롯해 직불금 제도 개편까지 쌀 정책 개편전행 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워크숍에 참석한 조합장들은 올해 이상고온 등으로 왕겨충이 두꺼워지고 분상질립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벼를 쌀로 가공해서 판매해야 하는 RPC(미국종합처리장)를 운영

하고 있는 농협임장에서는 수율(벼가 쌀로 가공되는 비율)이 떨어짐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벼매입가격 결정이 이뤄져야 올해 가격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에 공감했다.

또 RPC의 지속적인 전남 쌀 단일품종 유통출하 노력이 평균 출하가격을 높이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하고 단일품종 브랜드 육성을 확대해 나가자는 의견도 나왔다.

박태선 본부장은 "벼매입가격 결정이 어려운 만큼 서로 많은 정보를 교환했으니 지역별로 RPC의 경영을 고려해 쌀 생산 농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벼매입가격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주간 증시 전망

2050~2100 박스권 예상

미·중 무역분쟁 완화 여부

연준 통화정책 관심 가져야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미 무역대표부 장관의 중국관세부와 발언으로 미·중 후속협상 결렬 불안감이 부각되며 하락 출발했지만 수요일 화웨이 CFO(최고재무책임자) 석방소식과 정의선 부회장이 직접 나선 수소전기차 투자 발표로 현대차그룹주가 급등하며 상승 전환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장 종료 이후 삼성전자가 4분기 가이드언스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 국내외 주요 증권사가 2019년 반도체 실적전망을 하향하면서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하락해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압수수색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그룹 승계와 연관될 수 있어 삼성그룹주 전반에 불확실성이 부각됐다. 하지만 중국 실물경제지표가 전월 발표치를 하회했음에도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중국증시 하락폭이 제한되자 국내증시도 하락폭이 확대되지는 않았다.

다음주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로 오는 19~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8일 중국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식 및 중앙경제공작회의, 미 상무부 보고서 발표 등이 있다.

FOMC의 경우 FF선물에 반영된 12월 금리인상 확률은 75%를 상회하고 있어 12월 금리인상이 시장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관심은 내년 금리 인상횟수와 파울 의장의 스탠스, 중립금리의 변화 여부라 할 수 있다.

최근 미국 10년물 금리의 하락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현재 점도표에서 제시된 2019년 3번의 금리인상횟수가 축소조정되거나 FF선물 금리인상 확률이 30%선으로 하락한 2019년 3월 금리동결 가능성이 제기되는가 여부인데 최근 연준위원들의 금리인상 신중 발언 등을 본다면 시장의 기대에 화답하는 비둘기파적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주중에 있는 중국경제공작회의와 18일 중국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식의 경우 경기 부양정책 시사 및 중국정부가 추진중인 '제조업 2025' 정책방향성이 수정(자체생산을 줄이고 외국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원안은 중국 내 자체생산 핵심부품 비중을 2025년 50%에서 2030년 70%까지 확대키로 했었다)된다면 투자심리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도 있다. 다만, FOMC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높고 올해 중국정부의 무역분쟁에 대한 미온적인 반응을 생각한다면 특별한 결과물이 도출되지 못하고 단기 실망감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

반면, 19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전국이 AI, 마이크로프로세서, 로봇 등 14개 하이테크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출제한 의견 수렴한 뒤 관련 보고서를 공표할 예정인데 내용에 따라 미국 기술주의 변동성 확대로 나타날 수 있다.

지난 금요일 하락으로 코스피지수는 12개월 이익추정대비 8.3배(PER) 수준, 순자산가치대비 0.83배(PBR) 수준으로 2008년 글로벌경제위기와 같은 급속한 경기침체 및 금융시장위기를 가정하는 수준으로 하락했다.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2019년 반도체 업황 우려 등이 제기됐지만 새로운 요인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뉴스가 반영된 결과로이며 여전히 시장방향성의 핵심은 미·중 무역분쟁의 완화여부와 연준의 통화정책에 있기 때문에 이번주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정 계 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aT, 영암·무안·신안 수출업체 9곳 결의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이병호)는 지난 14일 영암·무안·신안군 소재 농수산식품 수출업체 9개사와 수출결의회를 가졌다.

올해 11월 말까지 광주·전남지역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해 국내 전체 농수산식품 수출증가율인 2.9%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 특히, 영암·무안·신안군 농수산식품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약 3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광주·전남 내에서도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aT는 수출업체의 애로사항

을 청취하고 지역 농수산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결의대회 후 참석자들은 지역 대표 수출 품목인 김의 생산현장을 방문해 수출과정을 견학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

백진석 aT 부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내 중소 농수산식품 수출업체 간의 협력과 소통을 도모하겠다"며 "함께 커 나가는 '지역동반성장'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농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